

자식·교육·나눔사회를 만들자

IV 독서현장탐방

서울서 세계최대 '도서관 축제'

1.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올림픽,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도서관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태국에 이어 네번째로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전세계 154개 회원국의 1700여 단체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매미드급 국제 행사다...”

(서울신문, 2005년 11월 23일 27면, 임창용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30일 도서관이야말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가장 역동적인 엔진이라고 말했다. 권여사는 이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와 도서관 관계자 1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도서관은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나라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6년 5월 30일 1면, 권성희 기자)

“..I am aiming for a tremendous success so that the world will be impressed and our people will feel proud of our librar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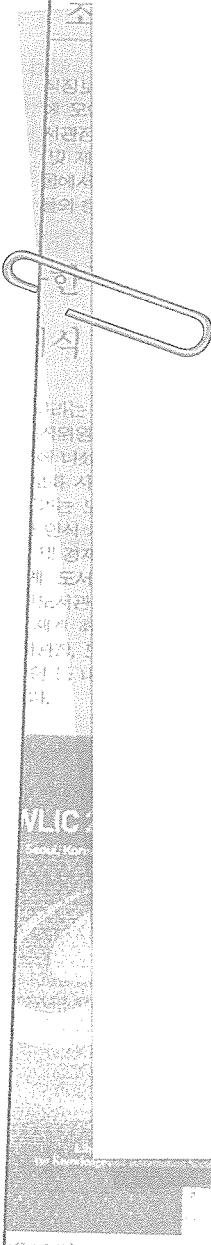
(Korea Herald, 2006년 7월 4일, 이선영 기자)

“..한국을 찾는 세계 도서관계 지도자들에게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히든 카드’는 바로 디지털 도서관이다. 법원 도서관, 포스코도서관, LG상남도서관 등 사이버 공간에 쌓은 지식의 성채를 그들에게 자랑하겠다는 것이다...”

(시사저널, 2006년 7월 11일자 28호 28p, 고재열 기자)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서울 개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전 세계 도서관계 관계자의 방문으로 국내 도서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숙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북아포럼, 2006년 7월호 152p)



2006 서울 WLIC 조직위원회 준비 차원으로 2006.7.15. 목 10:00-11:00까지 개최되는 행사를 소개합니다.



2006 서울 WLIC 조직위원회 준비 차원으로 2006.7.15. 목 10:00-11:00까지 개최되는 행사를 소개합니다.

NATIONAL

Library

2. 대회를 통해 도서관계의 문제점 제조명

“...도서관의 낙후성 극복만이 지식정보 강국 구축의 지름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뜨거운 성원과 후원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전 세계인의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지길 바란다.”

(조선일보, 2006년 1월 16일 29면, 정동열 이화여대 교수)

“...‘지식,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WLIC서울 개최를 맞아 부평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들의 책놀이터가 되듯, 공공도서관이 지역민의 친숙한 사랑방으로 자리잡아 가길 기대해 본다.”

(경향신문, 2006년 6월 5일 30면, 조운찬 문화1부장)

“...도서관은 문명의 산물이자 역사이고 집대성이다. 어느 서가의 어떤 책이든, 책은 그것이 쓰여지고 제작된 시대 문명의 수준과 경향을 가늠케 하는 시간의 단증이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도서관은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도서관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일보, 2006년 7월 18일 28면, 최윤필 기자)

3. 그 외의 대회관련 행사홍보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D-100일을 맞아 ‘전국도서관장 전진대회’가 열린다...전진대회에서는 세계도서관대회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될 예정이다.”

(내일신문, 2006년 5월 9일 19면, 장유진 기자)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1일 탤런트 박상원(48)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직위는 박씨의 신뢰감을 주는 연기활동과 사회공익 활동에 활발히 앞장서온 점을 위촉 이유로 들었다...”

(한국일보, 2006년 6월 2일 24면)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19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대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자리로...”

(연합뉴스, 2006년 7월 18일, 김용래 기자)

National Library in southern Seoul. Shin did not belabor the point but he is indeed working for a dream that Korean library scholars and professionals have cherished for almost a decade.

to execute and no public interest its activities, anyone would have reacted like me,” he recalled. But in the end he decided to commit to the project,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to